

“U-23에서 제2의 손흥민 나올 것”

황선홍 감독 “국민 여러분께 희망 드리는 팀 만들겠다” 6월 U-23 아시안컵 본선·9월 아시안게임 ‘2관왕 도전’

황선홍(54) 감독 남자 축구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팀을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황선홍 감독의 U-23 대표팀은 10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소집, 29일까지 훈련을 이어가며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담금질에 들어간다.

지난해 9월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이날 첫 훈

련에 앞서 “(취재진이)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담도 된다”며 “새해니까 새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작하고 자신감 있게 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예선을 통과한 U-23 대표팀은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본선 2회 연속 우승과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에 도전한다.

이달 말까지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황 감독은 “포지션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 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훈련 이후로는 모일 시간이 많지 않아 전술적인 부분이나 인제 풀에 대해 100%는 아니어도 윤곽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감독은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잘 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며 “우리 팀에서 제2의 손흥민, 황희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연령대 선수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찰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들을 합류 시키겠다”며 “K리그 감독님들께도 계속 소통하면서 선수 차출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황 감독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 감독님들이나 다른 지도자 분들로부터 조언도 구하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고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U-23 아시안컵 본선과 아시안게임 우승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U-23 축구대표팀 서귀포 담금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10일 제주 서귀포 공천포전지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재 스타트 ‘Good’

PGA 투어 새해 개막전 센트리 챔피언스 공동 8위

임성재(24)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개막전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820만달러)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임성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9타를 쳤다.

합계 24언더파 268타로 경기를 마친 임성재는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새해 첫 대회를 톱10 입상으로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나흘 연속 60대 타수를 적어냈다.

전년 PGA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는 이 대회에 작년 이어 두 번째 출전한 임성재는 지난해 공동 5위에 이어 2년 연속 톱10에 들었다.

3라운드 18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공동 선두 그룹에 6타차 공동 4위로 올라섰던 임성재는 최종 라운드에서 날카로운 샷을 뽑아냈지만, 퍼트가 전날만큼 따라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3라운드에서 그린 적중시 1.43개였던 퍼트가 이날은 1.86개까지 치솟았다. 그린까지 가는 동안 샷 실수도 나왔다.

다만 18번 홀(파5)에서 어프로치 샷 실수를 저지르고도 8m 버디 퍼트를 잡아넣어 마무리가 깔끔했다.

임성재는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해서 분위기를 못 탄 것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새해 첫 대회부터 톱10에 든 것은 만족한다”고 말했다.

3타를 줄인 김시우(27)는 공동 23위(17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경훈(31)은 33위(13언더파 279타)에 그쳤다. 이경훈은 이날 6타를 줄였지만 1, 2라운드에서 70대 타수를 적어낸 부담을 이기지 못했다. 연합뉴스

제주 유나이티드 전력 보강 박차

유망주 김규형 임대 영입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크로아티아 무대에서 뛰던 유망주 김규형(22·사진)을 임대 영입했다.

김규형은 울산 현대 유스팀 출신(울산 현대중·울산 현대고)으로 U-17, U-20 연령별 대표팀에도 발탁된 적 있다.

2018시즌을 앞두고 우선지명으로 프로무대에 직행했는데, 크로아티아 명문팀 GNK 디나모 자그레브가 임대 제안을 하면서 프로무대 데뷔는 K리그가 아닌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이뤄졌다. 2020년 1월 완격 이적한 후 NK 이스트라, 슬라벤 벨루포 등에서 임대 생활을 하다 올해 제주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를 밟게 됐다.

김규형은 168cm, 63kg의 비교적 단신이지만 스피드를 활용한 공간 드리블 돌파와 연계 패스 플레이가



좋은 주포지션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제주는 소개했다.

김규형은 “K리그 무대는 처음 이기에 기대감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 기대감이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감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팀에 빠르게 녹아드는 게 목표”라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서 유소년 야구캠프 1차 훈련

KBO, 오는 24일까지 2주간

KBO 사무국이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생활야구장에서 유소년 야구캠프 1차 훈련을 진행한다.

‘2022 KBO Next-Level Training Camp’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리틀야구 대표팀 상비군 43명이 참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소년

훈련은 프로 출신 지도자들이 축적한 비법을 유소년 선수들에게 전수하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KBO리그의 뿌리인 유소년 야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KBO 사무국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바이오메카닉스, 피지컬 트레이닝, 필드 트레이닝 등 첨단 과학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에는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신체를 야구에 적합하게 발달시

키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한다.

KBO 의무위원회가 파견한 전문 트레이너가 선수별 피지컬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한다. 수집된 피지컬 데이터를 선수 육성을 위한 한국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한다.

오후에는 장종훈 감독과 김동수 배터리코치, 차명주, 홍민구 투수코치, 이종열 타격코치, 채종국 수비·주루코치가 그라운드에서 유소년 꿈나무들을 지도한다. 훈련 과정에서 랩소드, 트랙맨, 옛트르닉, 블라스트모션 등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사용해 선수들의 투구·타구

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3차원 동작 분석, 키네마틱 시퀀스 분석 등을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거쳐 운동 역학적으로 선수 개개인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 맞춤 해법을 제공한다.

오후한 KBO 의무위원장, 이승엽 KBO 홍보대사는 부상 방지, 반도핑, 야구 심리 등의 기본 교육과 부상 방지, 학교폭력, 성폭력 교육과 같은 인성교육 강사로 나선다.

2월 7일부터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발한 고교 입학 예정 우수선수 40명을 대상으로 유소년 2차 훈련이 이어진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명하게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백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